

광주시교육청 원거리 통학 전학 허용... '편법 구제' 논란

# “허용 사례 없다” VS “모두 구제해야”

### “무더기 전학 신청 우려” VS “강제배정이 문제”

“광주는 단일학군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통학거리 때문에 전학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 단일학군에 따른 일괄배정 원칙과 교육환경전환심사 제도의 취지를 깨버린 겁니다.”(A고교 교장)

“무더기 강제 배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강제 배정으로 인해 매일 3시간 이상 통학해야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교육환경전환심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모두를 구제해야 합니다.”(정희곤 광주시의원)

교육환경전환심사를 통한 고교 강제 배정 피해 학생들의 구제(광주일보 2월28일자 7면 보도)에 대한 논란

이 뜨겁다.

그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통학거리를 심사 대상에 올린 것은 이 제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다 폭넓게 적용해 강제 배정 피해 학생 모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육환경전환심사를 통해 23명의 전학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중 12명은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전학이 불가피해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은 강제 배정을 통해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로 통학거리 문제를 제기해 받아

들여졌다.

시교육청은 통학거리와 관련 가결 조건으로, 전학요강에서 요구한 지난 10월31일까지 전학을 가야 했지만 ▲학교적응문제로 전학을 가지 않은 경우 ▲전입학 학교가 중학교 동일학군에 속해 전학을 못 간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은 했지만 입주시기가 늦춰진 경우 ▲교육과정이나 학교 간 일치하지 않아 전학안간 경우에 한해 전학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환경전환심사 제도를 편법 운영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중학교 때 전학을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인데,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전학을

요청한 이들은 중학생 신분인데 고등학교 전학을 결정했다니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통학거리와 관련해 환경전환심사가 열린 것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이후에 무더기 신청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해 강제 배정된 학생 모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은 “통학거리·버스노선 등을 점검해 통학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전환심사 대상을 확대해 강제 배정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승용차 천변 추락 불을 낸 뒤 15분 만에 진화했다.

지난 1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광주천변 도로에서 정모(32)씨가 몰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3m 아래 천변으로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소방서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내 부모 무시” 10대가 작은 아버지 살해

### 광산서 ... 흥기로 가족 8명 찢러

부모를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은 10대가 할아버지 생일 모임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광주광산경찰청은 3일 존속 등 8명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존속 살인미수 등)로

김모(19)군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서 자고 있던 작은아버지(44)의 목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숙모, 고모 등 친척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집에 있던 12명의 친척 중 다른 방에서 자던 큰고모부와 사촌 3명만이 화를 면했다. 이들은 이사를 기념한 집들이와 김군 할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고 자던 중이었다. 김군은 아버지와 2일 오후 5시께 할아버지의 집에 가 식사를 하고 오후 11시께 귀가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이날 아버

지와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간 뒤 지난해 가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등산용 칼 2자루를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은 경찰에서 “친척들이 평소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 무시했고 어머니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김군의 아버지는 노동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 금은방 절도범 ‘범죄 종합선물세트’

### 강도·승용차 절도 17건 여죄 드러나

금은방, 승용차, 오토바이 절도에 여성 대상 강도 등... 금은방에 침입, 5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10건이 넘는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청은 3일 금은방서 수색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 등)로 구속된 김모(38)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승용차 절도 등 모두 17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금은방까지 포함해 피해 금액만 5억 45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성 A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같은 날 광산구

생암동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해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과 가방,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차량에서 차에 타려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차량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이중 2대를 강도행각에 이용했으며 6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압수한 소지품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해 추석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려한 점도 추가로 밝혀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신문배달원 뺑소니 사망’ 12시간 후 자수 운전자 채혈검사 안해 ‘봐주기’ 의혹

새벽 신문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외제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광주서부경찰청은 지난 2일 새벽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생촌동 한 횡단 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오토(50)씨를 자신의 BMW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모(2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오토씨는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씨는 이날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12시간이 지난 오후 7시4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구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차를 끌고 광

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미처 앞을 보지 못했다”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씨에 대해 음주 측정기 검사를 실시한 뒤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채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벽에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뒤늦게 자수한 만큼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채혈 검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오토가 스스로 자수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 고흥 팔영산 등반 5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3일 오후 2시 40분께 고흥군 접안면 팔영산에서 등산하던 김모(53·경북)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이날 팔영산 7봉과 8봉 사이에서 일행들과 산행하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흥=주라경기자 gjju@kwangju.co.kr

술집서 여성 때리고 미안해서 입맞춤

○주점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때리고 입맞춤한 30대 취객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박모(38)씨는 지난 2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D주점에서 K(여·3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뒤 불에 입을 맞췄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K씨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 가라”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때리고 미안해서 뽀뽀했다”며 형질수습.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 “수감 열쇠가 없네...”

### 광산경찰, 119에 SOS ‘횡당’

광주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손목에 채운 수감의 열쇠가 사라져 119 구급대에 출동하는 ‘횡당당’ 일이 발생했다. 3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산경찰청 행사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던 김모(50)씨는 매우 황당해하고 있었다.

경찰은 키 168cm·몸무게 60kg 가량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김씨의 도주

를 막기 위해 수감을 채운 상태였다. 약 1시간 뒤 점심시간이 되자 경찰은 김씨가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수감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손목에 채운 수감의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광산소방서 119 구급대에 SOS 요청을 했다. 119 구급대는 광산경찰청의 요청을 받고 행사과에 대기 중이던 김씨의 손목에 채워진 수감을 절단기로 잘라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은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람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함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함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안구건조 전문의 원장 김동진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위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울스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현동의신한의원 의료광고상의필 제120106-09810 [민공])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3월중 개강

예쁜글씨 POP & 폰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노인심리상담사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가정사역상담사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